

중공이 없으면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공은 《중국은 인구가 많고 기초가 박약하여 풍족한 생활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늘 말한다.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인구밀도가 거의 중국의 3 배나 되고 (1998년 수자통계에 근거함) 일본국토는 71%가 척박하고 자원이 결핍했지만 제 2 차세계대전이 남겨놓은 폐허더미에서 시작하여 30 년도 안걸려 미국다음으로 세계제 2 위의 경제강국으로 되었다. 1955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국내생산총산지는 연속 18년동안 매년 평균 10%속도로 신속히 증가되었다. 이렇게 일본경제가 기적을 창조할때 중공이 끊임없이 정치운동과 “대기황”에서(천재가 아니라 대약진에서 농업이 황폐된 결과임) 피살되고 굶어죽은 사람이 도합 8천여만명이 된다. 문화대혁명이 결속될때 중국의 국민경제가 거의 붕괴의 변두리에 이르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중공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득불 경제방면에서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공은 중국인민들의 근로한 로동과 지난날 수십년동안 중공의 사회경제에 대한 파괴로 조성된 중국인민들의 련가로동력으로 대량의 국제자본을 끌어들이 이른바 국가경제의 “고속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사회의 기본도덕의 붕괴, 빈부차별의 극심화, 생태자원의 파괴,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이것은 중공이 닭을 죽여 알을 꺼내는 경제발전의 모식인바 중화민족의 미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집을 짓고 누가 과학연구를 했는가? 중공이 했는가? 우리들의 의식주와 재부는 죄다 인민들이 자기손으로 번것이고 중공이 준것이 아니다. 인민들이 중공을 부양한 것이고 중공이 인민을 부양한 것이 아니다. 중공은 전면적으로 인민들의 재산을 박탈한후 나중에 인민들에게 좀 돌려주었을뿐인데도 당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공산당을 노래하고 있는 웃지못할 인식을 갖고 있다.

중공은 대량의 국민수입으로 무엇을 했는가? 2002년인민대표대회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공금으로 먹고 마신것이 2천억, 공금으로 타고다니는 차소비는 3천억, 공금으로 출국한 소비는 2천

억이나 된다. 세계은행에서 추산한데 위하면 7차 5개년계획으로부터 9차 5개년계획까지 투자정책의 실효률이 30%좌우이고 랑비가 4천억~5천억에 달한다. 중공은 이렇게 부패하고 랑비했을뿐만아니라 국민을 압제하기 위해 나라의 자금을 투입했다. 수십억을 허비하여 인터넷“금방패공정”을 세워 사람들이 해외의 진실한 소식을 보는것을 막고 있으며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국민수입의 1/4을 썼지만 교육의료복지건설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적었다. 중국인중들은 이렇게 정부와 중공을 부양하고 있으니 어찌 부담이 가중하지 않겠는가? 중국인민들은 근로하고 용감하다. 사회가 공정하고 정치운동을 하지 않고 눈먼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인민들은 방법을 강구하여 부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대만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중공이 없고 수십년의 정치운동이 없었다면 중국의 경제는 줄곧 온당하게 발전했을 것이며 중국은 30년전에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 매인당 평균 년수입은 4~5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지금 매인당 평균 년수입은 미국의 절반에 달할 수 있으며 경제총생산량은 미국의 2배남짓하게 되었을 것이다. 의심할바없이 중국은 언녕 세계의 제 1류강국으로 되었을 것이다.》



가뭇없이 사라진 다리뼈속의 철판



올해 70 이 넘은 나는 산동성양산현에 살고 있다. 1995년 11월 25일 저녁 7시경에 나는 마을 공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21m나 뿌리워 땅에 쓰러졌다. 즉시 나의 팔이 두동강이 났고 다리는 6 곳이나 골절이 되었으며 특골이 두대가 부러졌다. 나는 병원에 가서 세번이나 수술하고 다리뼈에 철판을 박았다. 병원에서는 나에게 “8급 불구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7년 6월 13일부터 나는 파룬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20일이 지나자 나의 온몸에 난류가 흘러들었고 다리에 힘이 났으며 몸이 가벼워져 자전거를 탈수 있었다. 이때로부터 나는 화학비료공장에 가서 하루에 70~80톤 비료를 이겨도 좀처럼 피곤하지 않았다. 2년후 내가 병원에 가서 투시해보니 나의 다리뼈속의 철판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의 다리를 수술해준 의사는 《참 불가사의합니다.》하고 감탄해서 말했다.

기사회생한 나의 큰어머니

올해 73세인 나의 큰어머니는 천식, 당뇨병, 심장병, 고혈지방증 등 병으로 장기간 고생하다 재작년에 팔이 부러졌고 작년에 뇌혈전에 걸려 자립하지 못하게 되었다. 며칠전에 큰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밥을 먹을수 없었고 혈관이 줄어들어 주사를 놓을 수 없었고 이마의 주름살이 풀렸고 두 귀가 아래로 축 처졌다. 시병원에 가서 3일동안 응급치료를 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되자 의사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며 후사를 처리하라고 했다. 큰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파룬궁수련생인 나의 어머니는 큰어머니의 귀에 대고 《아주머니, 대법사부님이 아주머니를 구해줄거예요. 나를 따라 마음속으로 “파룬따파가 좋다. 찌싼런이 좋다.”라고 외우세요.》라고 말하자 집식구들도 모두 우리 어머니를 따라 “파룬따파가 좋다. 찌싼런이 좋다.”라고 외쳤다. 과연 기적이 일어났다! 큰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말할 수 있었고 이튿날 밥도 먹을 수 있었으며 사흘후엔 걸을 수가 있었다. 큰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를 보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파룬대법의 덕분이고 사부님의 덕분이요.》라고 감격하여 말했다.



미국독립일대시위행진에 절찬을 받은 파룬궁대오

지난 7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독립일 233주년을 경축하는 대시위행진에서 초청을 받은 천국악단, 기발대, 요고대로 구성된 파룬궁대오는 규모가 제일 컸으며 수많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슬로바키아 총통부앞에서 감행한 중공의 폭행을 견책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중국 국가 주석 호금도가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총통부에 도착했을 때 중공특무들은 파룬궁학원들의 프랑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끊어놓았으며 그들의 프랑카드를 파룬궁학원들의 프랑카드를 막아놓았다. 두명의 녀파룬궁학원들이 프랑카드를 빼앗긴후 다른 프랑카드를 펼쳐들고 《파룬따파가 좋다.》라고 외쳤다. 위협공갈했으나 헛탕을 친 3명 중공특무는 등뒤에서 이 두 녀사를 밀쳐 20여계단의 층계에서 굴러떨어지게 했다. 그중 소녀사는 머리가 터져 피를 많이 흘렸고 두팔을 상했다. 중공특무들의 폭행을 목격한 슬로바키아 경찰들은 분개하여 강제로 그들더러 현장에서 떠나라고 명령했다.



뉴질랜드 정부요인들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견책

10년동안 중공의 박해로 세상튼 파룬궁수련생을 기념하기 위해 뉴질랜드 오크란시 중심 이허빠이 광장에서 반박해 10주년 활동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뉴질랜드 외교부장 맥크리, 국가당국회위원 후츠손, 오토란시시장 반스 등 수많은 정부요인들이 분분히 편지를 써 지지를 표하고 중공의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